



이용섭 “한반도 평화 세계로 뻗어나가기”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22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처님의 큰 사랑이 한반도의 평화와 화합으로 싹트기를 염원한다”고 기원했다.

이 후보는 “봉축연등의 불빛이 온 세상을 비추듯이 부처님 자비의 손길이 백두에서 한라,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미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있지만 아직 평화의 불이 만개하기에는 많은 걸림돌이 있다”며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지난날의 분열과 갈등이 화합으로 승화되어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로 뻗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이용섭 후보는 “부처님의 큰 가르침 중 하나가 자비의 정신으로 광주시민 모두가 서로에게 사랑과 배려를 나누는 오늘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명진 “한미정상회담, 북핵 해결 전환점 되길”

 김명진 민주평화당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2일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한다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북한이 핵 실험을 비난하며 북미정상회담을 재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나 태영호 전 공사를 비난하며 판문점 선언 후속 대책 논의를 중단시킨 것은 하나의 막판 협상전력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만 존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의 ‘선 핵폐기 후 보상’ 발언은 북한을 상대로 고압적인 자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북한이 충분히 반발할 만한 것이다”며 “미국이나 우리가 모처럼 형성된 남·북·미 협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인 “북부순환로 공사 우회로 개통 시급”

 문인 더불어민주당 북구정장 예비후보는 22일 “환경단체, 종교시설, 학교 등의 이견으로 작공이 지연되고 있는 북부순환도로 1공구에 대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하향식 중단선형 설계변경을 통해 조속히 작공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예비후보는 “최근 일곡교차로에서 도동고개 구간, 북부순환도로 2공구가 개통됐지만 용두동에서 일곡교차로까지 1공구 구간은 한세봉 환경 훼손과 인근 학교, 거주시설 등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주민과 환경단체들의 이견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북부순환도로는 향후 오랜 주민 숙원사업인 용봉IC 진입로 개설을 포함한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로서 우선 개통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신우철 완도군수 재선 출마 선언


 신우철 더불어민주당 완도군수 후보가 지난 21일 군수 재선 출마를 선언했다.

신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시대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누가 완도군수가 되느냐에 따라 완도 미래가 앞사기느냐, 아니면 뒤처지느냐라는 운명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래 완도 100년을 담보할 마중물을 만들어 더 큰 완도의 미래를 위해 다시 한 번 헌신할 각오로 출마표를 던졌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중단 없는 완도발전을 위해 멈추지 않고 겸허한 자세로 군민과 함께 걸으며 다가서며, 군민 행복시대와 군민 참여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신 후보는 전복산업 안정화, 해양헬스케어 산업 육성, 품격 높은 문화관광자원 개발, 행복 완도·따뜻한 복지 완도 실현, 청정 완도 특화브랜드 육성 등을 5대 공약을 제시했다.

김영록 ‘부처님 오신 날’ 송광사 법요식 참석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는 22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순천 송광사 대웅전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다.

김 후보는 이날 송광사를 찾은 불자들에게 함께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되새기며, 자비와 광명이 온누리에 가득하기를 기원했다. 부처님의 자비를 기리며 헌축(불전에 초를 올림)도 했다.

김 후보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화해와 상생의 길을 열어 가자”며 “소외받는 이 없이,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앞서 21일 구례 화엄사를 찾아 덕문 주지스님과 ‘환담’했다. 장성 백양사에서 지선 방장스님과 토진 주지스님 등을 만나 ‘차담’을 나눴다.


김성환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육성”

 김성환 민주평화당 광주 동구정장 예비후보가 22일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를 육성해 하나 된 동구를 만들어야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뭉쳐 누구든지 살고 싶은 동구 마을을 만들고자 한다”며 “동구에서도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평생학습거점센터 신축 ▲마을공방(동구마루)설치 확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지역별 특화 마을공동체 육성 및 지원 ▲주민과 함께하는 희망동구방승 운영을 세부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은방 “북부순환도로 1공구 조속 착공”

 이은방 민주평화당 광주 북구정장 예비후보는 22일 “시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편의 증대를 위해 북부순환도로 1공구 구간을 조속히 착공해 북부순환도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광주시가 지난 2013년 한세봉 구간은 우회도로를 개설해서 공사를 진행해왔고 시민들께 약속했음에도 최근 우회도로 개설은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서 애초 계획인 2개 터널을 1개 터널로 줄이고 터널을 11m 깊이 파서 환경영향을 저감할 계획을 밝힌 것은 광주광역시 행정의 신뢰성과 연속성을 어진 처사이다”고 비판했다.

또 “공익임몰레로 인해 녹지공간마저 줄어드는 현실에서 한세봉을 관통하는 터널을 개설해 녹지공간을 훼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진 ‘살기좋은 진도’ 100개 과제 제시


 이동진 더불어민주당 진도군수 후보는 최근 진도를 종로약국 2층에 선거사무소를 열고 세몰이에 나섰다.

이 후보는 “청년에게 희망을, 어르신에게 공경, 여성에게 지원을, 중·장년층에게는 안정을 군정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군민들의 자부심이자 대표 일꾼으로 소명감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더 강한 진도의 발전을 위해, 문제의 정거의 성공과 함께 진도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능력있는 CEO 군수가 되겠다”며 “미래세대와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도의 미래를 위해 ▲안전하고 행복한 진도 ▲잠자는 진도 ▲풍요로운 진도 ▲품격있고 활력있는 진도 ▲아름답고 살기 좋은 진도 등 5대 분야 100여개 군정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노형태, 청년 일자리·복지 공약 발표

 노형태 정의당 전남지사 후보는 ‘청춘 탄탄대로 전남’이라는 정책 목표에 맞춰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22일 밝혔다.

노 후보는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와 노동권·건강권을 보장해 청년이 살고 싶은 전남을 만들겠다”면서 “전남지사 직속 청년정책본부·청년정책담당관을 신설해 청년을 도정의 주요 파트너로 세우고,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책 수업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노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및 기회균형채용제 ▲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제 3%→5%로 상향 ▲청년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 ▲청년 디딤돌 수당 및 청년실업부조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배당금을 지급하는 ‘전남형 청년사회상속제’ 시범 실시 등을 내놴다.


김영우 “실버건강푸드사업 추진 어른신 지원”

 김영우 바른미래당 광주 동구정장 후보는 22일 “실버건강푸드사업의 도입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동구의 고령화 비율은 현재 21.89%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이는 전국 고령 인구 비율(14.21%)보다 7.68% 높은 수치이다”면서 “어르신들이 편중된 동구에 실버건강푸드 사업을 추진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실버건강푸드사업은 고령친화식품, 실버식품, 메디푸드 등 친고령 치료식과 영양식을 우리 어르신들의 손으로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이라며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 확보,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다”고 덧붙였다.


김삼호,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 단체 관람

 김삼호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정장 예비후보는 22일 “5·18 38주년을 맞아 캠프 당직자들과 함께 최근 ‘임을 위한 행진곡’을 단체 관람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1980년 고등학교 1학년 때 목격한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대학시절 내내 학생운동에 몰두했다. 학생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농민운동, 지역운동, 정당활동을 하다 보니 오늘날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회고했다.

또 “광주시민의 피눈물로 이룩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공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임을 위한 행진곡’의 주인공 윤상원 열사의 생가가 있는 광산구가 앞장서겠다. 광주정신이 제대로 계승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영태 “광주교육청 직제·역할 개편해 혁신”

 최영태 광주시교육감 후보는 22일 “‘학교 중심, 지역과 함께’ 하는 교육 플랫폼으로 교육지원청의 직제와 역할을 개편하겠다”는 광주시교육청 행정 혁신 공약을 발표했다.

교육감 및 본청에 집중된 권한과 인력·예산 등을 각 교육지원청에 대폭 분산하고, 학교자치를 지원하며, 배움 중심 교육을 위한 지원 역할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최 후보는 “모든 교육 행정을 교육을 돕는다는 목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학교민주주의와 교육 자치는 헌법 정신의 실현이다. 지시와 통제에서 지원과 협력체제로 혁신하고, 기획과 정책 개발 역량을 강화해 ‘학교중심, 지역과 함께’ 하는 광주시교육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갑석 “광주 서구시민 목소리 대변”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지난 21일 중앙당으로부터 공천장을 받은 뒤 “더욱 겸손한 자세로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광주시민들과 당원들이 쟁취해낸 경선을 치렀고, 불리한 경선 물의를 딛고 당원들의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 승리한 만큼 시민들과 소통을 강화해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경선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당원들과 시민들의 힘으로 선택받은 후보라는 점에서 지역경제와 지역정치 발전에 힘을 쏟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임우진 “상무 신도심 헬스·의료관광 특구로”

 임우진 무소속 광주 서구정장 예비후보는 22일 “상무 신도심을 헬스·의료관광 특화지구로 조성 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헬스산업을 융복합화한 의료관광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추세”라면서 “지역의 건강, 휴양 등과 관련된 관광자원과 연계해 지역의 특색 있는 웰니스 관광 거점을 육성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광천동~상무신도심 구간에 전문 의료기관들이 밀집된 메디컬 스트리트가 이미 형성됐을 뿐 아니라 광주시와 전남도가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공동지원·선진배 의료관광 기반 구축을 위한 국비를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권세도 “여수를 마이스산업 메카로”

 권세도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장 후보는 22일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른 여수시는 마이스산업의 최지점”이라며 “여수를 마이스산업 메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여수는 879km에 달하는 해안선, 365개 섬 등 도시 전체가 천혜의 관광 보고”라며 “풍부한 수산자원과 먹거리는 연간 1500만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서남해안 대표 해양관광도시로 자리매김했다”고 설명했다.

또 “여수공항, 서울~여수 KTX, 크루즈 접안이 가능한 항만 등 편리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1만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최고급 호텔과 비즈니스형 리조트, 펜션 등 다양한 숙박시설이 완비돼 있다”고 덧붙였다. 권 후보는 마이스산업 전담기구 설치, 시의회·전문기관·대학 공동으로 여수시 마이스산업 추진협의회 구성 등을 약속했다.

이충식 “장흥 소방안전타운 건립”

 이충식 무소속 전남도의원(장흥군 제1선거구) 예비후보는 군민과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장흥 소방안전타운 건립’ 등 주민 밀착형 정책을 발표했다.

전남소방본부는 2020년까지 장흥군 장흥읍 원도리 옛 장흥교도소 배후부지 4만여㎡에 청사를 신축, 이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이 예비후보가 전남도의회 의정활동 중 전남도와 장흥군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사업부지 선정과 도비 예산 확보 등에 기여했다.

이 예비후보는 장흥 소방학교대의 소방교육 승격을 위한 법정 교육시설·인력·장비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 계획 등을 밝혔다. 또 소방의 핵심거점 국제사업인 국립소방박물관 장흥읍 유치해 우드랜드·물과과학과 연계한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정숙·오광록·김형호 기자 jwpark@

(재)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18-71호

2018년도 광주지역 지역주력산업 비R&D(기업지원서비스)사업 1차 수혜기업 통합공고

2018년도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광역시가 지원하는 기업지원서비스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수행기관(주관 또는 참여기관) 및 과제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 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우리지역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8년 5월 11일

광주광역시, 광주테크노파크원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한국광산업진흥회장, 광주디자인센터원장, 전자부품연구원장, 한국금형산업진흥회장,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광기술원장,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남부대학교 산학협력단장, 포인트비즈랩대표이사

1. 지원개요

- (지원규모) 국비 및 지방비 총 약 64.8억원
- 지원 프로그램별 총 소요비용 10% 이상 기업자체 비용 부담 필수
- 프로그램별 부담 및 적용비용 상이에 따라 세부내용 사전 확인후 지원요망
-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총 16개
- 신청 제품별 2개 산업 및 산업당 5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총 10개 프로그램 신청가능)

산업분야	지원유형	지원분야	프로그램명	지원기관명
광융합	사업화지원	컨설팅 및 마케팅, 네트워킹	광융합산업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화 및 네트워킹 지원	한국광산업진흥회
	기술지원	제품고급화	고부가가치 신규시장 확대를 위한 광융합산업 기술지원사업	한국광기술원
복합금형	기술지원	제품고급화	복합금형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제품고급화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술지원	인증 및 특허	복합금형산업의 지식기반 기술지립과 역량 강화를 위한 인증 및 지식재산권 취득지원	남부대 산학협력단
	사업화지원	전시회 및 마케팅	복합금형산업 시장다변화 및 수출확대를 위한 전시회 및 마케팅 지원	한국금형산업진흥회
	사업화지원	제조공정개선	복합금형산업 ICT 연계기술을 위한 제조공정 개선지원	광주테크노파크
디지털 생체의료	기술지원	전임상시험지원 인증 및 특허	원천기술 확보 및 제품의 신뢰성확보를 위한 인증 및 특허지원	전남대 산학협력단
	사업화지원	전시회	디지털 생체의료산업 시장 다변화를 위한 전시회 지원	조선대 산학협력단
	사업화지원	네트워크	디지털 생체의료산업의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	포인트비즈랩
	기술지원	제품고급화 및 시제품제작	디지털생체의료산업의 글로벌 시장확대를 위한 제품고급화 및 시제품제작 지원	광주테크노파크

• (신청자격) 광주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주력산업 전·후방 연관 제품(기술) 분야로 신청 가능

- 과제별 상세 지원프로그램 내용은 지원기관별 별도 양식에 작성

• (지원방법) 수혜기업 선정 후 직접지원(지원기관 → 수혜기업) 또는 간접지원(지원기관 → 용역기관 → 수혜기업)의 방법으로 지원

* 지원기관의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주요일정

- 온라인 접수 : 2018년 5월 11일(금) ~ 5월 31일(목) 18 : 00시까지
- 사업신청서 서면 제출 - 2018년 6월 1일(금) ~ 2018년 6월 8일(금) 16 : 00시까지
- 제출처 : 지원기관 담당자(지원기관 홈페이지 참조)
- * 온라인 접수 및 서면제출은 수행기관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지원기관 담당자에 문의(必)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18년 5월 18일(금) 15 : 00 ~ 18 : 00
- 장 소 : 광주테크노파크 생활지원로봇센터 1층 대강당

3. 기타 신청방법 등 세부내용은 (재)광주테크노파크(<http://www.gjtp.or.kr>) 및 각 지원기관 홈페이지내 지원사업(공지사항) 참조